

동네방네

영암군, 적극행정 지자체 1위 '쾌거'

전남 영암군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88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적극 행정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우수지역 1위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산구(76.0점), 3위는 전남 여수시(75.8점) 등이 차지했다. 군은 그동안 대불국가산단 내 15년 이상 장기간 미해결과제로 남아있던 산단내(나불로) 중앙분리대(가로화단)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동함평산단, 지방中企 특별지원지역 선정

전남 함평군은 대동면 일대에 조성한 동함평일반산업단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전남지역에 지정된 특별지원지역 산단은 기존의 목포대양일반산단, 담양일반산단 등을 포함해 이번에 재지정된 4개소(나주일반산단·강진일반산단 등)와 신규 지정된 2개소(동함평산단·광양세풍산단) 등 총 9곳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담양군, 봄 알리는 복수초 활짝

봄 소식을 알리는 복수초가 2일 담양군 용면 가마골 인근에 모습을 드러냈다.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복수초는 복과 장수를 상징하며 한낮에만 꽃잎이 벌어진다.

/담양군

안동시, 무농약 친환경농업인 직불금 지원

안동시는 2020년부터 무농약 재배 농가에 지속 직접직불금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유기 인증의 경우 친환경농업직불금 및 유기지속직불금의 형태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횡수 제한 없이 매년 지급하고 있으나, 무농약 인증 농업인은 3회(3년)만 지급하고 이후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지속 직불금은 무농약 재배인증 3회차 이후 정부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 직불금을 계속 지급하는 사업이다. 무농약 친환경재배에 따른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실천 농가의 소득 유지는 물론 친환경농업 안정적 정착유도를 위해 시는 무농약 지속 직불금을 신규 사업으로 전격 지원하게 됐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전남 관광객 가뭄에 자영업 '시름'

각종 모임, 외출 극도로 자제 '코로나19 여파' 봄축제 잇단 취소 '정부·지자체 차원 파격 지원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전남 주요 관광지 입장객 수가 급감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 등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거리두기'를 당부하면서 지역민들이 각종 모임과 외출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세수 감소와 함께 지자체로부터 관광지 시설을 위탁해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들과 관광지 주변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지자체마다 준비해온 봄꽃축제들이 잇따라 취소될 가능성도 있어 지역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이 우려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일 전남 주요 관광지 운영 현황 등에 따르면 지난달 담양군 메타세쿼이아길 입장객(유료기준) 수는 4600여명으로 작년 2월(6000명)보다 23% 줄었다.

죽녹원 입장객 수는 지난달 2만500



전남도청 전경

여명으로 작년 2월(3만5000여명)보다 42% 급감했다.

함평자연생태공원 입장객 수는 지난달 1900여명으로 작년 2월(9100여명)보다 거의 5분의 1수준에 그치는 등 전남 주요 관광지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다.

관광지 입장객 수가 급감하면서 관광지 내 민간 운영 시설도 한파를 맞고 있다.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에서 유료로 운영되는 어린이 프로방스의 경우 지난달 입장객 수는 1200여명으로 작년 같은 달(7300여명)보다 6분의 1수준으로 확 줄었다.

담양군 관계자는 "주요 관광지 유료

입장객이 줄어들면서 세수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며 "어린이 프로방스 등 연간 수천만 원의 임대료를 군에 납부하는 민간사업자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지 주변 식당과 편의점, 특산물 판매점 등도 된서리를 맞고 있다.

곡성 기차마을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 손님이 모두 10명이었다"며 "날씨가 좋아 예년 이맘때면 식당이 북적거렸는데 요즘은 손님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더구나 구례 산수유꽃축제는 이미 취소됐고,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3~5월 예정된 축제들도 취소될 수 있어 관광 주변 자영업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메타세쿼이아 길 주변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 모 씨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 중 하나가 관광산업이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축제장과 관광지에서 봄, 가을 한 철 장사로 버티는 민간사업자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경북도교육청, 코로나19 차단에 58억 투입

매월 학교 방역, 열화상카메라 지원 대규모 학교서 다수인원 빠른 측정 부족한 방역품 보충에 예비비 지원

경북교육청은 2일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방역비와 방역물품 구입비로 23억 원을 예비비로 추가 지원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월에 1차로 학교 방역,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구입비 35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2차 23억 원의 예비비를 지원해 총 58억 원의 예산이 학교와 교육기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사용된다.

이번 예비비는 학교와 교육기관에 부족한 마스크, 손소독제 구입비 6억 1286만 원, 학교 방역비 5억 5110만원, 23개 교육지원청과 학생수 500명 이상 200개 학교에 발열검사용 열화상카메라 설치비 11억 1500만 원이다.



지난 2월 27일 경상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영천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 /경상북도교육청

열화상카메라는 학생·교직원의 등교와 출근 시 체온을 자동으로 감지해 발열의심자를 사전 선별해 출입을 통제하는 장비로 다수의 인원을 빠르고 동시에 측정하기 위해 대규모 학교에 설치하기로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개학 연기로 늘어난 준비기간을 잘 활용해 코로나19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고, 부족한 방역물품을 보충하는데 이번 예비비가 즉시 투입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경북 내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로 맞춤 교육

경북도교육청 올해 전면 도입

경북도교육청은 3월부터 도내 6개 마이스터고등학교(구미 금오공업고, 구미전자공업고, 경주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 영천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 포항제철공업고, 울진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학생의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다.

입학전형요건이 과목별로 이뤄지는 마이스터고등학교는 학과 내, 학과 간, 학교 간, 학교 밖 교육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경북도교육청은 고교 학점제 도입을 위해 2018년부터 구미 금오공업고등학교에서 무학년제 학점제 정책연구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마이스터고 4교, 특성화고 2교 총 6교, 2020년에는 마이스터고 6교, 특성화고 12교 총 18교에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마이스터고등학교 전면 도입을 앞두고 1학점 수업량을 17회에서

16회로 완화하고, 교육과정 이수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해 최소 이수학점을 192학점으로 적정화했다.

또 학교 밖 학습경험, 공동교육과정 이수 등 학교자율 편성 운영 과목을 확대하고, 학과 내 세부전공을 다양화해 타 학과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융합교육과정 운영 기반 마련과 직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책임교육을 강화했다.

이에 교육부·경북교육청·직업계고 학점제 지원센터가 연계해 마이스터고 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학점제 안내서 보급, 학교컨설팅, 학교밖 인프라 구축, 학교 공간 혁신 지원사업 등 물적 지원을 한다.

/경북=문봉현 기자

Weather forecast for March 3rd (Tuesday) with temperature range 0~11°C and a map of South Korea showing regional weather conditions.